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族文字出版专项资金资助项目

시버족

锡伯族

Xībózú

편자 권약평
역자 리현숙 김계연



요녕민족출판사
외국어교학과 연구출판사

© 李贤淑, 金桂彦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锡伯族: 朝鲜文 / 阙跃平编; 李贤淑, 金桂彦译.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14. 9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 王泉根主编)
ISBN 978-7-5497-0866-6

I. ①锡… II. ①阙… ②李… ③金… III. ①锡伯族—民族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K284.3-4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4)第216027号

锡伯族

XIBOZU

出版发行者: 辽宁民族出版社

地 址: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 110003

印刷者: 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面尺寸: 180mm×240mm

印 张: 5

字 数: 40千字

印 数: 1-1500

出版时间: 2014年9月第1版

印刷时间: 2014年9月第1次印刷

责任编辑: 张学林

封面设计: 杜 江

责任校对: 李 京

标准书号: ISBN 978-7-5497-0866-6

定 价: 18.00元

法律顾问: 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址: www.lnmzchs.com

淘宝网: <http://lnmz2013.taobao.com>

举报电话: 024-23284336

邮购电话: 024-23284335

联系电话: 024-23284340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ㄱ-ㄴ 순)

곽우파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즈다링(이족)

샌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자족)

전산천

정 아(회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짱족)

왕해연(창족)

심고전문가(ㄱ-ㄴ 순)

김여빈(회족)

송 전(몽골족)

수 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뭇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좡족, 요족, 바이족, 투자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창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양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통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녕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타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샤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짝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톨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목 록

제1장 시버족개황

언어소통에 관한 이야기 /11

제2장 시버족의 생활풍습

꽃무늬테두리 수놓기의 유래 /17

떡발이의 유래 /19

터허러에 깃든 이야기 /21

충명한 사냥군 /27

제3장 시버족의 민족신앙

시리마마에 관한 전설 /33

하이얼칸에 관한 이야기 /45

시버족과 “대도왕군가” /47

제4장 시버족의 풍속습관

활을 증매로 하여 좋은 연분을 맺다 /51

아버지를 “아마”라고 부르는 유래 /57

시버족이 경로하는 원인 /59

제5장 시버족의 명절

말혹절의 유래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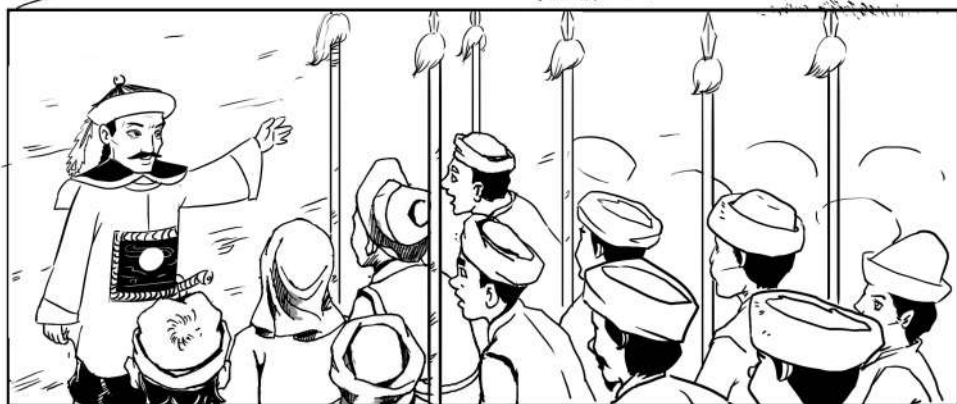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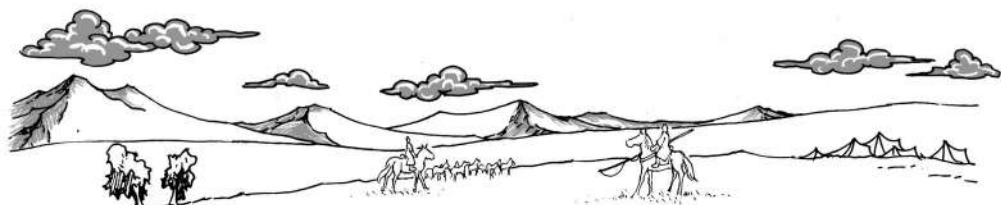
제6장 시버족의 문화와 예술

그림을 보면 그 뜻을 아는 관씨아주머니 /71

제7장 시버족의 체육과 오락

“까라하”잡기에 관한 전설 /77

참고문헌



제1장 시버족개황

시버족은 고대 선비족(鮮卑族)의 후예이다. 2000년 전국인구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시버족의 인구는 188,824명으로서 대부분 료녕, 흑룡강, 길림 등 성과 내몽골, 신강 등 자치구에 살고있다. 그중에서도 료녕성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데 시버족 총인구의 7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신강위글족자치구에 20%가 거주한다.

시버족은 무엇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진 동북과 서북 지역에 흩어져 살고있는가? 시버족의 고향은 동북이다. 1764년, 청나라는 성경(盛京, 지금의 심양) 등 곳으로부터 1018명의 장교와 사병을 모집하여 그들의 가족과 함께 총 3275명을 만족(滿族)관리들의 인솔하에 서쪽으로 이사하게 하여 신강 이리(伊犁)지방에 주둔하여 개간하며 변방을 지키게 하였다. 시버족사람들은 이리하남쪽의 하곡에 진을 치고 주둔하면서 우리 나라 변방을 개발하고 보위하는데 력사적공헌을 하였다.

차푸차르(察布查尔)시버족자치현 및 이리하류역의 광성현(霍城县), 공류현(巩留县)은 신강의 시버족이 집거하는 구역이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거주하기때문에 자체의 문화와 생활방면에서의 민족적특징을 비교적 많이 유지하고있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시버족은 흩어져 살고있기때문에 기타 민족과의 접촉이 밀접하여 언어, 의식주 등 여러 방면에서 현지의 한족이나 만족과 거의 같다.

시버족은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자가 있다. 시버족의 언어는 만어(滿語)를 기초로 발전하고 형성된 언어이다. 시버족은 거의다 한어를 쓸줄 안다. 신강의 일부 시버족은 위글족언어와 까자흐족언어도 알고있어 “천재적통역”이라고 칭송받고있다.

그러나 전날에는 여러 민족지간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오해를 일으키거나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았다고 한다.



언어소통에 관한 이야기

옛날 신강 차푸차르의 농민들은 물이 모자라서 마을의 물을 관리하는 관리로부터 류동하는 물패를 가져야만이 자기집의 논밭에 물을 댈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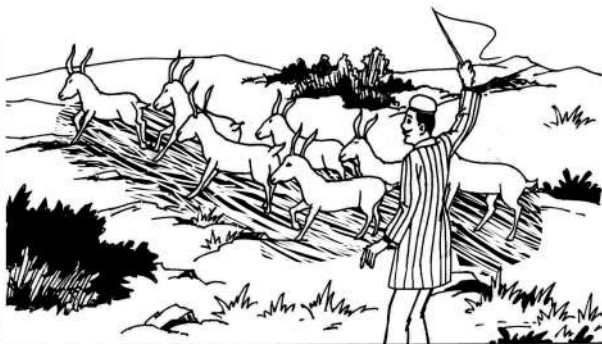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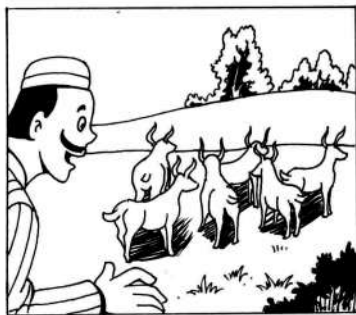
어느 하루, 물패는 류저얼이라고 하는 시버족농민에게로 돌아왔다. 같은 날, 튀허타홍이라는 위글족사람이 염소 일곱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는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해하다가 야외로 염소 찾으러 나갔다. 장삼이라고 불리는 한족사람은 이날 타촌에서 당나귀 한마리를 사서 타고 집으로 가고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날 공교롭게도 함께 만나 오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사연은 이러하였다.

류저얼이 아침 일찍 삼을 둘러메고 자신의 겨울밀밭으로 관개하러 갔다. 그가 밭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멀리서부터 튀허타홍이 다가오면서 말을 건넸다. “어이, 아카(위글족어, 형님이라는 뜻), 어이, 아카!”

“무슨 일지요?”

“나에게 염소 일곱마리가 있었는데, 모두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카는 보지 못했어요?” 이런 말들을 튀허타홍은 자기 민족의 말로 하였다.

“이 물은 오늘 아침에야 나에게로 돌아왔수다.” 류저얼은 자기 민족의 언어로 대답하였다. 그는 “나에게로 돌아왔수다”란 말을 할 때 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가리킨후 서쪽방향을 가리키면서 “나는 저녁밥 먹을무렵에야 물을 다 댈수 있으니 그때 자네가 와서 받아가게.” “예, 예.” 튀허타홍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손짓을 보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는 속으로, 이 형님께서 먼저 자기를 가리키고 다음은 태양이 지는 방향을 가리켰으니 기필코 “내가 너의 염소들을 보았어, 염소는 나의 앞을 지나 서쪽방향으로 갔단말이야”라는 뜻일거야. 그리하여 그는 기분 좋게 류저얼에게 “야커시(위글족어, “좋다”의 뜻), 야커시, 러허마יתי(위글족어, “고맙다”의 뜻), 제가 지금 당장 아카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서 찾아보겠어요.”라고 했다. 말을 마친 그는 다급히 서쪽으로 달려갔다.



튀허타홍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끝내 염소 일곱마리를 찾았다. 염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다행히 그 마음씨 착한 형님의 도움으로 염소를 찾게 되었으므로 도와준 은혜에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생각하였다. 튀허타홍은 염소를 몰고 다시 류저얼 가까이에서 다가가서 “아카, 아카!” 하고 그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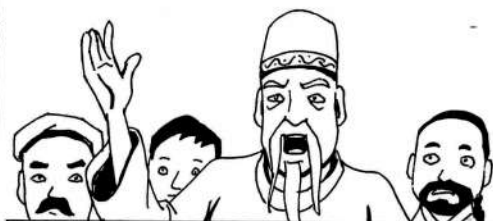
“무슨 일어요?”

“아카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염소 일곱마리를 모두 찾았어요. 요놈은 다리가 조금 절룩거리는데 이 염소를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류저얼은 “내가 말하지 않았소, 이 물은 오늘 아침부터 나에게 돌아왔는데 저녁밥 먹을무렵에야 관개가 끝난다고. 당신은 뭐가 그리 급하오?” 튀허타홍은 그의 손짓을 보고 자기 뜻대로 이해하면서 말하였다. “여보, 아카, 형님께서 나를 도와 염소를 찾아주어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하여 염소 한마리를 드려 나의 마음을 표시하는바요. 그런데 형님께서 염소 일곱마리를 다 달라고 하니 세상에 이런 도리가 어디 있단말입니까? 참으로 욕심이 많구려!” 류저얼은 튀허타홍이 굳은 얼굴을 하고서 한참동안이나 자기말만 하는것을 보고 이 사람이 도리를 따지지 않고 결코 물을 인도해가려고 하는구나고 생각하여 그도 매우 화가 났다. 두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언성이 높아지고 화가 더욱 치밀어올랐다.

그들이 싸우느라 정신이 없을 때, 당나귀를 탄 한 사람이 발머리를 지나고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각자의 언어로 “가시오, 누가 도리를 따지고 누가 도리를 따지지 않는지 저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지요.”라고 하였다. 그들은 씩씩거리며 당나귀를 탄 사람에게 다가가서 약속이나 한것처럼 함께 말하였다. “어이, 거기 좀 서시오!” 이 당나귀 탄 사람은 다름아닌 앞에서 이야기한 장삼이었다. 장삼은 영문도 모른채 멈춰섰다. 류저얼이 먼저 튀허타홍의 코를 가리키며 그에게 말하였다. “여보게, 이 사람은 도리를 따지지 않네, 억지로 나에게 돌아온 물을 빼앗아가려고 하네. 이 물은 내가 오늘 아침부터 관개하기 시작하였는데 저녁밥 먹을 때가 되어야 시간이 되는데도 이 사람이 글썄...”

튀허타홍도 노기등등하여 말하였다. “나의 염소 일곱마리가 여기를 지나가는 것을 그가 보았소. 나는 이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갔더니 정말 찾았소. 나는 염소 한마리를 그에게 주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려고 하였는데, 글썄 이 사람이 세상물정을 모르고 나의 염소를 모두 가지려고 하는게 아니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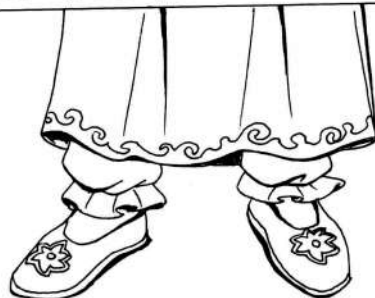
장삼은 눈이 휘둥그래지고 입이 썩 벌어졌다.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는 두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고있는줄로 오해하고 통명스럽게 말하였다. “자네들은 정말 허튼소리를 하고있네그려. 이 당나귀는 내가 방금전에 삼우록(“우록”은 청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설립한 행정단위로서 지금의 “촌”에 해당하다)에서 사온것인데 어떻게 도적질을 한것이라고 할수 있소? 여보시게, 여기에 증명도 있단말이요!”

튀허타홍은 장삼의 화난 얼굴을 보고 류저얼에게 말하였다. “보았지요? 형님께서 도리를 따지지 않으니 이 고향친구께서도 화가 나셨습니다. ” 류저얼은 장삼의 당나귀를 가리키면서 튀허타홍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아우! 도리를 따지지 않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하다는걸 알아두어야 해! 나에게 돌아온 물을 네가 빼앗아가고 하는것은 사람을 업신여기는것이 아닌가? ” 장삼은 “자네들은 사람을 모함하고있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단말인가, 이 당나귀는 내가 사온거란말일세, 도적질한것이 아니란말이요. ”라고 말하였다.

세 사람은 제각기 자기 민족의 언어로 길가에서 떠들어댔다. 주변의 사람들은 떠들썩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싸움을 말렸다. 그런데 세 사람은 제각기 자기 민족 말만 하면서 더욱 정신없이 다투면서 똥딴지같은 말만 계속하였다. 이때 그중 한 사람이 마을로 달려가서 서당의 어르신께 알렸다. “어르신, 큰일났습니다. 마을밖의 큰길에서 세 사람이 싸우고있는데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고 무엇때문에 싸우는지 영문도 알수 없습니다. 얼른 가보십시오!” 어르신께서 얼른 달려가 보니 세 사람이 뒤질세라 싸우고있었다. 그는 손을 들고 “잠깐만, 잠깐만! 자네들 한사람한사람씩 말하게. 류저얼 자네부터 말해보게, 어찌된 일인가?”라고 하였다.

세개 민족의 언어를 알고있는 어르신께서는 그들 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서야 어찌된 영문인지 똑똑히 알수 있었다. 이 모든것은 피차간의 언어를 모르는 데다가 제멋대로 상대방의 말을 추측한데서 일어난 오해였다. 어르신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의 통역이 되어 한바탕 해석하고 소통한 결과 세 사람은 모두 어찌된 일인지를 알게 되었고 서로 사과하였다. 튀허타홍은 그 절록거리는 염소를 잡아 여러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였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번 교훈으로 시버족사람들은 현지의 기타 형제민족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제2장 시버족의 생활풍습

시버족의 민족복장에서 남자는 긴 도포를 입는데, 허리에는 형겔띠를 매고 겹에 마고자나 짧은 옷을 걸쳐입으며 머리에는 우가 둥근 모자나 겹채양모자를 쓴다. 긴 도포의 단추는 오른쪽에 있으며 아래는 좌, 우 양쪽을 틔웠다. 옷의 원단은 남색, 갈색, 청색이다. 부녀들은 치파오(旗袍)를 입고 겹에 조끼를 걸쳐입으며 바지단은 끈으로 동이고 흰양말과 수놓은 신발을 신는다. 아낙네들의 복장은 처녀들보다 더욱 산뜻하고 아름답다. 시버족녀성들은 자신들의 옷과 신발에 여러 가지 꽃무늬를 수놓아 장식하였다.

꽃무늬테두리 수놓기의 유래

옛날, 시버족사람들은 대홍안령에서 살았다. 그곳은 산이 높고 수림이 울창하였으며 들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사람들의 키만큼 높아 야수들과 독사들이 숨기 좋은 곳이다. 사람들은 흔히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 그것이 근심되고 괴로웠으나 별다른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였다.

어느 하루, 란초라는 처녀가 집사람들과 함께 풀밭에서 풀을 베고있었는데 그녀가 바지단을 맷던 끈이 풀려서 잃어버렸다. 그녀는 머리에 쓴 붉은 머리수건으로 바지단을 매고 계속 풀을 베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풀을 베는 그녀의 발 옆으로 지나가는 독사뱀은 그녀를 물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란초는 모든 독사뱀들이 자기를 보더니 너나할것없이 비켜가고있음을 발견하였다. 란초는 이 일을 자매들에게 알려주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붉은 머리수건에 독사뱀이 겁을 먹고 달아났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붉은 형겔으로 바지단을 매기 시작하였다.

그후, 처녀들은 붉은 형겔으로 바지단을 동일뿐만아니라 울긋불긋한 여러가지 색실로 바지단에 각양각색의 꽃무늬테두리를 수놓았다. 나아가 옷깃과 소매부리, 그리고 옷자락에도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무늬테두리를 수놓았으며 신발에도 여러가지 꽃송이를 수놓아 신군 하였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결혼한 아낙네들은 여러가지 꽃무늬테두리를 수놓은 저고리와 바지며 신발을 착용하였으나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수놓은 형겔신발만 신을수 있었는데 이것이 점차 습속으로 되었다.